아버지의 사진

김수영

아버지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
비참이 일찍이 있었던 것

돌아가는 아버지의 사진에는
안경이 걸려 있고
내가 떳떳이 내다볼 수 없는 현실처럼
그의 눈은 깊이 파지어서
그래도 그것은
돌아가신 그날의 푸른 눈은 아니오
나의 기아처럼 그는 서서 나를 보고
나는 모-든 사람을 또한
나의 처를 피하여
그의 얼굴을 숨어 보는 것이오

영탄永嘆이 아닌 그의 키와
저주가 아닌 나의 얼굴에서
오-나는 그의 얼굴을 따라
왜 이리 조바심하는 것이오

조바심도 습관이 되고
그의 얼굴도 습관이 되며
나의 무리하는 생에서
그의 사진도 무리가 아닐 수 없이

그의 사진은 이 맑고 넓은 아침에서
또 하나 나의 팔이 될 수 없는 비참이오
행길에 얼어붙은 유리창들같이
시계의 열두 시같이
재차는 다시 보지 않을 편력의 역사…

나는 모든 사람을 피하여
그의 얼굴을 숨어 보는 버릇이 있소